

■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시조) 1차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시조)
- 회의일시 : 2025년 2월 5일(수), 11:00~11:58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유종인, 이우걸, 한분순 심의위원

2025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은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진 작가의 창작활동 및 그와 관련한 후속 활동을 지원해서 한국의 대표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야심 찬 계획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심사위원들은 여러 면을 세심하게 살펴서 일차 심사를 서면으로 하고 다시 예술인의 집 일정 장소에 모여서 1차 후보자를 활발한 토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 하였습니다.

대상작을 선정한 주안점은 합리적인 배점 기준을 충실히 따랐지만 제일 중요시 한 점은 창작 능력이었습니다. 작품은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읽었고 추진계획이나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앞서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사업이 시도하고 있는 한국 대표 문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 한 작가의 몸부림으로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심의를 진행하며 아쉬웠던 것은 시조 부문 응모자가 더 많았으면 하는 것 그리고 선정할 수 있는 시조 시인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있고 한국인의 예술의사가 반영된 독특한 장르로서의 위상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대하며 거듭 아쉬움을 표합니다. 대상작들은 동일한 관점으로 심사했으며 경력과 관계없이 우수한 능력을 지닌 시인을 발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성 면에서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공통 논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심사위원 개개인의 의견이 다 반영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현대적이고 아울러 그 형식이 한국시의 개성을 잘 담아내며 시대의 음영도 그려낼 수 있는 필력을 가진 우수한 작가의 출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심의위원 일동